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 공동 결의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국가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결의문 채택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7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양수발전소의 진안군 유치를 지지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정춘성 진안군수는 제안 설명에서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는 단순한 발전소 건설을 넘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발전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같다"며 "전북 지역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임을 강조했다.

특히 "7년에 걸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경제적 파급 효과와 고용 창출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운영 기간인 50년 동안 약 1,00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유치 노력이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차원의 균형 발전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심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7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양수발전소의 진안군 유치를 지지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화되는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진안 양수발전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를 둘러싸고 전국 각지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안군은 △사업 예정지 내 수몰 가구가 없다는 점,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한 입지 여건, △지역 사회의 강력한 유치 의지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다각적인 유치 활동

을 벌이고 있다. 진안군은 이번 결의를 토대로 범도민 유치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춘을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는 전북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도내 14개 시·군이 한마음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상기온과수저온피해 적극 대응

최훈식 장수군수, 농업기술센터 사파시험장 방문해 피해상황 점검

장수군은 최근 예년보다 낮은 봄철 기온이 이어지면서 과수 농가들은 개화기 서리와 저온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고 특히 군의 주요 소득 작목인 사과와 배의 경우 저온 피해에 취약해 조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상저온 발생 직후 관련 부서에 신속 대응을 지시하고 지난 16일 군 농업기술센터 직원 등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센터 사파시험장을 방문해 이상저온에 따른 꽃눈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여기에서 과수농가의 어려움 등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최 군수는 방문한 자리에서 "기상이 변이 일상화되는 기후 위기 시대에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가의 저온 피해에 빠르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강안 돌풍을 동반한 비와 눈이 내리고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과수의 개화기 저온 피해가 우려했으나 최저기온이 -0.3℃로 개화가 사과 저온



피해 한계온도(-1.7℃ ~ -3.3℃)에는 미치지 않아 개화가 빠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꽃눈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저온 현상으로 일부 과원에서 눈이 위축되고 안쪽으로 말리며 꽃눈 대 발생이 정지되는 양상이 관찰됐다. 이에 장수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가들은 생육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고 생육 회복을 위해 4중 복비 또는 요소를 엮면 시비하고 인공수분 실시 및 적화·적과 작업은 늦추어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수군은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저온피해 경감시설사업'으로 최근 3년간 10.8ha, 4억 9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냉해피해 저감제 지원사업'으로 총 600ha 면적의 과수 농가에 1억 8천만 원을 투입한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 등

무주군, 청소년 금연·건강 생활실천 스포츠 영상 공모

무주군이 2025년 청소년 금연 및 건강생활실천 스포츠(Short-form)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성장기 청소년들의 금연 및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비롯한 무주군 거주 학교 밖 청소년 등 누구나, 개인 또는 30인 이하의 단체로 참가 가능하다.

스포츠 영상의 주제는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문화 조성, △공공장소 간접흡연 피해, △금연 지원사업 및 금연구역 안내,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활동 등으로, 제작한 순수 창작영상물(50초 이상~3분 이내 / 1티빙 1작품 출품 가능)은 9월 12일까지 이메일(mjji122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의 첨부 서류는 무주군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무주군은 접수된 작품을 적합성과 창의성, 완성도, 활용성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해 우수작 4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고질 체납 차량 집중 단속

무주군이 조세 행정성 확보에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오는 5월 31일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번호판 영치)할 계획으로,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 등이다.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재무과와 산업경제과, 읍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으며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순회 단속을 실시한다.

무주군청 재무과 김선규 과장은 "반호판 영치는 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투명으로도 주민들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한주 장수군의원, "균형발전 고려한 주택 정책 추진해야"

장수군의원 최한주 의원(사진)은 지난 16일 열린 제374회 장수군의원 임시의정회에서 장수군 주택 신축과 균형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문을 실시했다.



최 의원은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는 장수군이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행복드림 반값 임대주택사업 100세대 및 청년농

촌보급지리사업 임대주택 30호, 전북 개발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45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계획 등 장수군의 주택 신축 사업이 대부분 장수읍에 편중되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 의원은 장수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택 정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장수군 전체의 균형을 고려한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수군의 균형 발전을 위한 주택 정책 방향과 면 지역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 분산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훈식 장수군수는 계남면 공동주택 80세대 사업계획승인(2028년 준공 목표), 계북면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 사업추진 등 그간 면 지역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 분산 성과를 내왔으나, 전북개발공사에서 검토 중인 45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계획을 읍·면별 분산 투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순차적으로 공동주택 공급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한주 의원은 "장수군의 발전은 장수읍뿐만 아니라 모든 면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달려 있다"며 "장수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균형발전을 고려한 주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무인 항공 활용 공동방제 사업 추진... 신청 접수

무주군이 오는 25일까지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무인 항공을 활용한 공동방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관내 벼 재배 농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벼 재배 농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무인 항공을 활용한 공동방제 사업

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벼 병해충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사업비 1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해 367ha(일반 357ha, 친환경 10ha)에 대한 방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방제 시기에 맞춘 신속하고 완전한 방제를 통해 '벼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 '이삭누룩병', '이화명나방', '혹명나방', '벼멸구' 등을 방제할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형 치유관광 발전 방향 모색

치유관광산업위원회 첫 회의 개최... 민관 협력 본격화

진안군은 생활 인구 증대와 지속 가능한 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17일 진안읍 사릉팔달센터 회의실에서 '진안군 치유관광산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 방향과 치유관광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회의로, 신원지유·수(가)치유·치유 음식·생활 인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공무원, 지역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진안군형 치유관광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회의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조정자(퍼실리테이터)가 회의 전반을 이끌어 다양한 의견을 중재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에 이어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방식과 과제 추진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진안군이 마련 중인 '치유관광 5개년 종합계획' 초안을 두고



열린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논의를 통해 5개년 종합계획에는 △1차 연도(2025년) 치유 자원 조사 및 자원 간 연계 콘텐츠 개발, △2차 연도 상설 콘텐츠 운영 방안 마련, △3차 연도 치유 시설 간 연계 및 시설 맞춤형 콘텐츠 보완, △4차 연도 주민 대상 치유 인력 양성, △5차 연도 성과 평가 및 제도화 추진 등의 단계를 통해 치유관광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다.

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보완하고, 주민 중심의 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치유관광을 지역 정주 인구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